

순천시 '생태·미식 도시'로 떠오른다

육해공 요리·서대정식 등 '에코 푸드'로 관광객 유혹
특화음식거리 조성 브랜드화
푸드투어리즘 대대적 홍보



순천시가 에코 푸드로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특화 음식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등 생태·미식도시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 한 상 차림인 순천 서대정식(왼쪽)과 짬뽕어와 고막, 낙지 등을 활용한 만든 육해공 요리.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라난 건강한 식재료를 순천의 맛을 보여주는 '생태와 미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푸드투어리즘 안내책자인 '맛있는 도시 순천본'을 내는 등 '식도락 도시'로 비상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푸드투어리즘으로 관광객 모시기... 생태미식도시 순천 추진=순천시가 추구하는 생태미식도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라난 건강한 식재료를 순천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멸되어가는 향토요리와 소규모로 생산되는 양질의 먹거리를 지키고 지역 주민 전체의 미각 수준을 높여 이를 바탕으로 순천을 세계적인 찾아오는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푸드투어리즘에 있어 음식은 관광매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여행자에게 관광을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여행자의 관광체험이 되는 것이 푸드투어리즘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순천의 자연에서 얻은 천연의 건강한 맛을 가진 에코 푸드(Eco-Food)를 소개하고 '순천다움'이 물씬 풍기는 남도바닷길 음식을 색으로 즐기고 맛으로 느끼는 즐거운 시간으로 초대하는 내용의 '맛있는 도시 순천본'을 출간했다.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가 청정갯벌의 지리적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산물 지리적표시 25호 품목으로 국내 최초 등록됐다. 현재 순천만에서는 연간 150여 t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표 요리로는 맛조개구이와 맛조개탕, 맛조개 초무침 등이 있다.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짬뽕어로 만든 장뽕어탕 역시 순천만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첫손에 꼽힌다. 짬뽕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여름철 체력 보강에 좋고 타우린 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정, 특화음식거리 조성으로 브랜드화=지난해 '음식관광'을 꾸린 순천시는 권역별 음식특화거리 조성하고 순천맛집 찾기, 음식브랜드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순천의 맛'을 관광객에게 알리는 작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으로 지정되어 남도바닷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짬뽕어와 고막, 낙지 등을 활용한 '순천육해공'과 '서대정식', '서대회', '순천갯벌아이스크림'은 수차례의 품평회와 맛 개선 작업을 거쳐 '남도바닷길 음식점' 6개소에서 본격 판매되고 있다.

순천만의 살아 있는 남도바닷길 음식은 순천의 산과 들, 바다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채소와 해산물의 신선함으로 가득 채운 에코 푸드로 담백함이 일품이며 여행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 순천만의 갯벌을 담은 순천갯벌아이스크림은 흑임자로 만들어 고소하고 달콤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건강 후식 메뉴이다. 권역별 특화음식 지정과 특화음식거리 조성을 통한 브랜드화 작업도 순항하고 있다.

시는 전통 음식거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순천미식도시 음식발굴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11개소의 권역별 음식거리를 매뉴얼로 구분했다.

전남도의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돼 10억원의 사업비를 받은 '웃장국밥거리'가 지난 4월 개장에 영업중이다.

시는 또 상사 민물매운탕거리 등 3개소를 권역별 음식특화거리로 홍보할 계획이며 대표메뉴 리뉴얼과 음식점 상차림 컨설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순천의 맛을 보여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지역의 숨은 맛집과 전통음식을 연계한 순천음식 관광코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순천만과 이곳 자연에서 얻은 천연의 건강한 맛을 가진 에코 푸드를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연향동 제1근린공원 인근 도로 포켓주차장 설치 전후 모습.

'포켓주차장' 설치로 차량통행 불편 해소

연향1지구 내 생활도로 2개소
보도 일부 줄여 주차공간으로

순천시는 평소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연향1지구 내 생활도로 2개소에 포켓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도로에 지역주민과 상가이용객들이 상시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어려운 연향우체국과 연향 제1근린공원 주변 450m 구간 양방향에 대해 보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공간을 만들었다.

포켓주차장은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주차시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의 가로수 사이의 보도 약 75cm를 주차공간으로

난해부터 시민단체와 운전자, 전문가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향1지구 주차환경 개선방안으로 포켓주차장이 제시되어 2개소에 42면의 포켓주차장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포켓주차장이 설치된 연향우체국 앞은 편도1차로로 시내버스가 하루 왕복 158회 운행하고 상가이용 주차차량으로 상시 차량통행이 어려웠다. 포켓주차장 설치 후 차로 폭이 방면당 3m 이상 확보돼 원활한 통행여건이 가능했다.

시는 포켓주차장 시범사업을 통해 주차편의와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에 확인됨에 따라 연향 제1근린공원-대우아파트 300m구간 양방향에도 포켓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태주 순천시 교통과장은 "도심의 열악한 주차문제를 공영주차장 설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도심지역내 빈공터를 이용하여 주민자율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와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주차공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전래동화 들려주는 늣깁이 할머니 학생들

중학학력인정반 어르신15명
어린이집서 선생님이 변신

"어린이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하지만 아주아주 옛날에는 호랑이와 사람이 함께 살기도 했어요. 오늘은 호랑이가 나오는 해님 달님 전래동화를 들려줄거예요."

지난 15일 순천시 중학학력인정반에 다니는 노인 학생 15명이 할머니 선생님이 변신해 용당동 슬기별 어린이집에서 구수한 전래동화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할머니 선생님들은 1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

어주기, 동요부르기 등 할머니와 아이들(1·3세대)이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균 연령 70세의 늣깁이 중학생이지만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크다. 한글을 배운것에 그치지 않고 동화구연 재능기부까지 나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한 한 학생은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모습이 설레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기성 순천시 평생학습과장은 "성인문해수업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1·3세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중학학력인정반 교실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찾아 전래동화수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과 교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벼 재해보험 가입 29일 만료

순천시는 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9일 만료됨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의 경우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시는 강조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경작불능,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보상해준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할인을 제공하고, 병충해 보장도 기존 4가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의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오늘부터 만 5세이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접수

순천시는 20일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월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 1인 포함 3인 가구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이면 된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이거나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

제 보호·양육하는 가족이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休

장성에서 쉬하세요.
슬과 호수의 정취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엘로우 시티
장성군